

한국BASF, 어린이 화학체험교실 개최

한국BASF는 10월 17-24일 울산 및 여수공장에서 <한국BASF 어린이 화학체험교실>을 실시한다고 10월17일 발표했다.

화학체험교실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03년 울산공장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매년 공장 인근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됐는데 참가학생들은 한국BASF 직원들로 구성된 선생님과 함께 화학실험을 직접 수행하는 실험 프로그램과 화학의 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여수공장에서는 10월 17-18일 양일간 소호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1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울산 공장에서는 10월 24일 울산 북구 메아리학교를 직접 방문해 장애우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화학체험교실은 유화제 원리를 알아보는 바디로션 만들기, 고흡수성 수지를 체험해 보는 사라진 물, 식물에서 색을 추출하는 원리를 배우는 적양 배추 시약, 고분자 화합물인 슬라임 만들기,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등 5가지 기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수에서는 PU(Polyurethane) 실험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2007년에는 아이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흡수성수지를 활용해 직접 씨앗 화분을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험 후 가정에서 계속 관찰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10/17>